

신문을 통해 본 ‘은퇴’ 이후 성공적인 노년기와 학습 : 『조선일보』의 《앙코르 내 인생》 기사를 중심으로

박신영 · 오경희[†]
(부산대학교)

A Successful Old Age and Learning : Focusing on the Article an Encore My Life in Chosun Ilbo

Sin-Young PARK · Kyoung-Hee OH[†]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meaning that learning of the old age has, through old age learners who augustly live after retirement-life so called successful silver years.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s used for analyzing the contents of articles about 15 old age learners and the results are follows below. First, the retirement has dual meaning for the old learners. One is they experienced psychological and emotional insecurity after retirement and the other is it is a turning point for them to realize their longtime dream. Second, the old age learners showed enthusiasm about learning and they voluntarily found the way of success in their silver years. Finally, the old age learners working in new career with provocative and enthusiastic attitude work as a role model of successful old age life and show how they progress. This study argued that we need to consider the old as active agents and the old age as the time when productive and continuous learning can be done. In addition, this study strongly insisted that we need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education by the elderly' and social and other relevant conditions are needed to be established immediately.

Key words: Retirement, The old age learner, Second life, Education by the elderly

I. 서론

고령화 사회로의 이행은 사회전반에서 보다 건강한 노년기를 맞이하기 위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압축적 고령화 사회로 이행됨에 따라 ‘생산적 노년’과 ‘돌봄적 노년’을 하나의 통일체로 바라보는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¹⁾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노년을 맞이하는 개인들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교육적 여건의 다름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적 노동에의 참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시대적 변화에 따라 높은 교

1) 여기서 ‘생산적 노화’는 ‘정상적 노화’를 토대로 사회참여를 통해 주체적인 노년기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말하며, ‘돌봄적 노화’는 자신의 삶에 대한 적극적 자세를 넘어 사회에 공헌하며 공동체적 삶을 위해 타인에 대한 ‘돌봄’의 삶을 목표로 삼는 것을 말한다.

[†] Corresponding author : 010-2849-7262, ohkhe@hanmail.net

육수준과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갖춘 건강하고 경제력 있는 노인들이 삶의 주체가 되어 새로운 노년을 계획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해가는 경향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Lee & Park, 2009). 노인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은 노년기에 대해 보다 생산적인 이미지를 불러일으킴과 아울러 노년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사회문화적·경제적 자본으로 인식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사회의 이러한 관심을 반영이라도 하듯, 2012년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고령자(55세 이상) 및 준고령자(50세 이상~54세 이하) 명칭이 부정적이고 부적절함을 인식하고 사회통념 및 국민인식에 부합하도록 '장년'으로 변경한다고 입법예고하였다. 이것은 가용 가능한 인적자원으로 노년을 바라봄으로써 저출산 및 고령화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국가재정 부담과 생산성 감소를 줄이고,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생기 있는 노년을 표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기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은 노년기에 대한 고착화된 부정적인 사고와 이미지 때문에 여전히 미온적이다.

노년기는 자신이 삶을 만들어가는 주체라는 능동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적극적인 노년의 삶을 지향하는 생애주기이다(Park, 2009). 특히 그 중에서도 노년기를 알리는 신호탄 역할을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은퇴'다. '은퇴'는 생애 전환적 사건들 중의 하나로 사회적 역할수행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흔히 '은퇴'는 어떤 직위에서 물러나 그 직위에 관련된 역할수행이 중단되는 '퇴직'과 혼용해서 사용된다. '은퇴' 또는 '퇴직'은 노년이라는 인식과 그 인식에서 오는 의미의 구조를 받아들이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노년기와 마찬가지로 '은퇴' 역시 당사자가 '은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느냐에 따라 '은퇴'이후의 삶의 질과 만족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은퇴'가 노년의 삶에 있어 심리적·사회적·경제적 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Kang, 2008)이라는 점에서 '은퇴'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이 융합된 의미로 접근해야 한다. Eates & Mahakian(2001)에 의하면, 노년기에 대한 인식과 이론화 작업은 생산성에 대한 다양한 요인들을 토대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는 개인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사회적·문화적·경제적 환경 차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개인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이 분리될 수 없음을 뜻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은퇴'이후, 성공적인 노년기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학습이 얼마나 중요하며, 학습의 관점에서 삶의 경험을 조명할 필요가 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은퇴'이후, 성공적이며 건강한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노년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삶에서 교육과 학습의 경험이 자신의 성장과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건강한 노년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모색함은 물론이고, 노년기에 대한 사회 인식 재정립과 평생교육현장에서 노년교육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특히, 연구대상자들은 '은퇴'이후에도 지속적인 학습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직업세계에 진입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노년과 생산적인 노년기를 위한 '노년에 의한 교육'의 중요성을 재촉구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호기심을 촉발하는 것으로 연구에 착수하였다.

첫째, '은퇴'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둘째, '은퇴'이후의 삶을 어떻게 디자인했을까?

셋째, '은퇴'이후의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다.

II. 이론적 배경

노년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능력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사회가 노인에게 대해서 뿐만 아니라 노인 자신들도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으로 낙인을 찍게 만들기 때문에(Choi, 2002) ‘은퇴’를 일종의 위기로 인식하기도 한다(Rhee & Lee, 2005). 실제로 젊은 청춘을 바친 산업 현장에서의 ‘은퇴’는 노인학습자들에게 심리적·정서적 측면의 변화로 우울, 스트레스, 불안감, 두려움, 허전함, 당황감 등을 경험하게 만든다(Yoon & Lee, 2006). 그러나 중요한 생애전환적 사건인 ‘은퇴’는 상실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 또는 기회의 획득을 함께 동반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은퇴’는 그동안 무거웠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짐을 내려놓고, 그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선택하여 도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은퇴’와 관련된 긍정적인 노년의 삶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은퇴’이후, 적응 및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것으로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을 들 수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활동은 자아개념을 재확립하는데 필요한 역할지지를 제공하고, 이러한 역할지지는 긍정적 자아상을 유지시켜 주고, 긍정적 자아상은 생활만족도를 높여준다(Lemon et al., 1972). 따라서 은퇴노인은 노년기에 상실된 역할 활동에 대체될만한 다른 활동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활동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된다(Kim & Jung, 2003). Kwon & Lee(2011)의 연구에 의하면, 은퇴노인들의 생활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이들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수면·식사·운동·의료 행위 등의 개인유지시간에 사용하였고, 그 다음이 여가활동시간, 참여 및 봉사활동시간, 근로시간과 가사노동시간 순으로 나타났으며, 할 일 없이 집안에서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언급하였다. 이 연구는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적

극적인 인생참여와 활기찬 생활이 강조되어야 함으로 은퇴한 노인들의 능력을 고려하여 국가차원에서 여가활동과 일자리창출 등의 정책 및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은퇴한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있어 배우자가 있는 경우,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경제적 상태가 좋은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은퇴이전 직업이 전문적이거나 안정적인 경우, 여성노인보다 남성노인일 경우 등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Joo, 2011; Kim, et al., 2011; Kwon & Lee, 2011). 또한 높은 정적인 자아복합성을 지닌 은퇴자들은 높은 생활만족도를 나타내므로 개인마다 서로 다른 자신의 긍정적인 여러 모습들을 확인하고, 각자 구체적이고 차별적인 긍정적 자기특성들을 고양시킬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Kang, 2007).

둘째, 은퇴준비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으로 은퇴자들이 보다 성공적이고 생산적인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은퇴준비프로그램이 필요함을 강조한다(An & Kim, 2007; Kee & Kim, 2005; Lee, 2005; Lee & Kee, 2010; Park & Kee, 2009). 은퇴준비프로그램은 정서적 준비도·경제적 준비도·신체적 준비도에 효과가 있으며(An & Kim, 2007), 자아정체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Lee & Kee, 2010). 또한 은퇴와 관련한 교육요구로는 퇴직 후의 경제생활, 여가시간 활용, 건강관리 방법 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Lee, 2005).

셋째, 은퇴한 남성노인들의 재취업 경험에 관한 것으로 정년퇴직한 남성노인들이 경제적 필요로 재취업을 원하고 있으며, 불리한 노인취업 현실에도 불구하고 재취업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은 자신의 기대수준을 낮추고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다(Kim et al., 2008). 이렇게 재취업에 성공한 남성노인들은 한동안 누리지 못했던 삶의 활력과 사회적 존재감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 그리고 퇴직 후 노인들은 재취업 과정에서 생활시간의 재구성과 생산성의 재구성을 얻게 된다(Song, 2008). 여기서의 생활시간의 재구성은 노인의 휴

식 욕구, 가족원과 사회적 관계 욕구, 여가활동 욕구 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결정되기도 하고 다양한 메커니즘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생산성의 재구성은 노인이 자신의 경력과 이별하고 신체적 능력과 사회적 요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신이 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 일의 정도를 설정하면서 나름의 힘든 고충과 애환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찾아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인생의 전 생애주기에서 '은퇴'는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생애전환기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개인적·사회적·국가적 측면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노력이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열정과 조화를 이룬다면 길어진 노년의 삶을 보다 행복하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Ⅲ. 연구 방법

『조선일보』의 『앙코르 내 인생』은 성공적으로 인생 2막을 펼치고 있는 은퇴한 51명의 노년을 대상으로 인터뷰(2011년 1~12월, 매주 목요일)하여, 이들의 다양한 노년의 삶을 기사화한 코너다. 본 연구는 이들 중에서 60세 이상이면서 적극적인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새로운 삶을 디자인하여 인생 2막을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는 노인학습자 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 과 같이 60대 4명, 70대가 4명이며, 남자는 6명, 여자는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대상자의 이름은 이미 기사화되어 실명이 거론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명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그리고 미디어에서 제공된 자료를 사용하고 있기에 취재된 노인학습자들의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이를 기사화한 해당 신문사의 허락을 받았다.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내용을 분석

하였다. 질적 연구는 “인간이 행동하는 의미에 관심”(Park, 2004)을 두는 연구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도 은퇴자들이 자신의 노년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며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위해 학습과 일상을 어떻게 디자인해 나가는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들이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는 생애사적 접근을 요구했다. 이들은 자신의 생애를 토대로 배움에 관한 이야기를 성찰적 의미로써 전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들이 구조화된 텍스트로써 기사화되어 연구자의 연구자료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내러티브적 접근 또한 필요하였다. 이는 또다른 형식의 생애사적 접근(또는 내러티브적 접근)으로 연구자로 하여금 수집된 기사자료의 반복적 읽기를 지속 하도록 촉구하였다. 이들의 담론 속에 담겨진 의미 있는 내용들을 이끌어내고 이를 범주화하여 대표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주제를 붙이는 과정에서, 또다시 반복되는 전 생애사적 맥락에서 오는 단절적 의미들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 범주화와 주제화는 본 연구 전체의 과정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마지막 글쓰기 과정에서 이러한 범주화와 분류화는 각각의 진술들을 이해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어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는 통찰적 이해를 도왔다. 이러한 반복순환적 과정을 통한 분석과 글쓰기는 동료연구자와의 논의와 해석의 과정을 거치면서 반성적 사고를 불러일으켰으며, 또다시 확인하는 작업에서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Ⅳ. 연구 결과

이행(transition)은 생활의 구조적인 변동을 말하는 것으로 이행과정에서 개인은 기존의 생활구조를 벗어 던지고 다른 생활구조를 습득하게 된다. 이때 성공적인 이행은 성공적인 출발을 예측하게 한다. '은퇴' 역시 생애이행의 분기점으로 은퇴 전·후 삶에 변화의 기준이 된다.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

no	publication (2011)	name	age	gender	job	
					past job	present job
1	1. 06	Lee, Jun-Yeok	72	man	board member of construction firm	guitar master craftsman
2	2. 10	Park, Chang-Won	65	man	board member of the bank of korea	social welfare expert
3	3. 03	Jang, Mi-Seon	62	female	saleswoman of discount Store	senior model
4	3. 10	Kim, Sung-Cheol	74	man	oceanographer	psychology consultant
5	4. 21	Jeong Jae-Yun	72	man	ceo of sewing factory	computer instructor
6	4. 28	Park, Ji-Ho	66	man	export-import bank	oriental painter
7	10. 27	Moon, Tae-Woo	69	man	korea electric power	overseas volunteer
8	11. 17	Han, Suk-Hul	73	female	korean restaurant owner	drummer

1. 인생 2막을 위한 서곡: 불안과 희망의 시기

‘은퇴’는 한편으로는 심리적·정서적 불안을 가져오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반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미뤄둘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꿈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진다.

가. ‘은퇴’, 심리적·정서적 불안

‘은퇴’는 중년 혹은 노년기 이후의 삶의 정체성에 변화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변화이다(Kim et al., 2010). 즉, ‘은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은퇴’이후의 삶을 다르게 받아들인다. 1997년 IMF는 많은 사람들이 노동으로부터 강제적 소외를 경험한 시기이다. ‘은퇴’이후의 삶에 대한 어떠한 대비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갑자기 직장에서 물러나야만 했던 비자발적 은퇴자들은 노동현장으로부터 멀어지자 무력감과 불안감을 경험하게 된다. 왜냐하면 노동은 인간의 자발성을 실현시키고, 최고의 잠재적 가치를 드러내기 때문이다(Sarup, 1987).

1998년 12월 나는 30년 가까이 다닌 한국전력에서 명예퇴직했다. (...) 회사를 퇴직하고 몇 달간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별다른 할 일이 없는 상황을 처음 겪었다. ‘할 일’이 필요했다. (문태우, 69세, 해외자원봉사자)

이러한 불안은 정년을 다 채운 은퇴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이들은 그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온 공적 장소로부터 격리됨에 따라 지금까지 해

온 자신의 일에 대한 허무감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30여년 넘게 내 이름 앞엔 ‘해양학자’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었다. (...) 모자람 없고 충만한 인생 1막을 살았지만 막상 정년이 다가오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30여 년간 해온 마라톤을 중단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두려움이 앞섰다. (김성철, 74세, 심리상담사)

강제퇴직이든 정년퇴직이든 한 인간에게 있어 ‘은퇴’는 일상의 변화와 함께 심리적·정서적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하는 생애 중요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나. ‘은퇴’, 꿈을 향한 도전

한편, ‘은퇴’는 또다른 시작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양식이 달라질 뿐이다. 만약 ‘활동기 은퇴자’²⁾(Joo & Kim, 2011)라면 ‘은퇴’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다.

이준석은 유방암 선고를 받은 아내를 위해 비록 ‘은퇴’를 결심했지만, 단순히 물러남이 아니라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자신의 꿈을 실행할 수 있는 생의 전환적 사건으로 ‘은퇴’를 받아들인다.

2) 조혜진·김민정(2011)은 은퇴기를 3단계로 구분(활동기, 회상기, 간병기)한다. 그 중에 ‘활동기 은퇴자’는 비교적 건강과 재무상태가 양호한 편에 속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들은 ‘은퇴’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과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

신문을 통해 본 ‘은퇴’ 이후 성공적인 노년기와 학습 : 『조선일보』의 《양코르 내 인생》 기사를 중심으로

직장 생활 31년 동안 오로지 일밖에 몰랐던 내가, 그렇게 그만두리라고는 예상치 못한 눈치였다. 게다가 그들을 두 번 놀라게 한 건 내가 낸 ‘사직의 변’ 때문이었다. “이제 기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일 때문에 미룬 제 오랜 취미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렵니다.” 내 나이 만 쉰다섯의 일이다. (...) 기타도 기타였지만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아내였다. (...) 병원에 갔더니 유방암 2기였다. (이준석, 72세, 기타 만드는 장인)

이처럼 ‘은퇴’를 어릴 적 꿈을 실현하기 위한 계기로 삼는 것은 노년기의 여성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장미선 역시 여고시절 가졌던 성우의 꿈을 대신해 시니어모델 도전을 결심하게 된다. 자칫 젊은이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질 수 있는 모델이라는 직업에 도전하기 위해 시니어모델 교육과정에 등록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남은 생애를 디자인하였다.

갈채 받는 성우의 꿈을 꾸며 여고 시절을 보냈다. (...) 한때 반짝했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30년 전 성우의 꿈은 아주 오랜 동화처럼 빛을 잃어갔다. (...)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뉴 시니어라이프’라는 재단에서 50~85세를 대상으로 ‘시니어 모델’을 구한다는 이야기였다. (...) 화려한 모델이 될 상상을 하자 뜻밖이던 스무 살 시절 나를 들뜨게 했던 성우의 꿈이 다시 기지개를 폈다. 4개월짜리 시니어모델 교육과정에 얼른 등록했다. (장미선, 62세, 시니어모델)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은퇴’를 어린 시절의 못다 펼친 꿈을 실현하기 위한 계기로 삼는 것을 볼 수 있다. ‘은퇴’로부터 오는 불안보다는 ‘은퇴’이후에 새로운 희망을 부여하는 긍정적 마인드와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통해 자신들의 꿈을 향해 도전한다. 이들에게 ‘은퇴’는 또다른 세상과의 만남을 위한 신호탄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자세는 미래를 준비하는 노년교육의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 그리고 이들은 ‘은퇴’를 생애 한 과정으로 보며, ‘은퇴’이후의 삶을 주체적으로 디자인하는 적극적 자세가 중요함을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2. 인생 2막을 위한 아리아: 열정의 시기

‘은퇴’는 생애전환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건으로 세상과의 단절이 아닌 또다른 세상과의 만남을 시작하는 관문이다. 따라서 보다 만족스러운 만남을 위해서는 준비된 ‘은퇴’가 필수적이다.

가. 나만을 위한 나의 노래: 자유로운 형식

일반적으로 성인학습자의 특성 중의 하나가 자주도학적 학습이다. 무엇보다 자신이 원하는 배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배움은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열정적일 수밖에 없다.

다음 사례는 평소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았던 직장인이 ‘은퇴’이전의 봉사활동을 ‘은퇴’이후 자신의 직업으로 전환하면서 일에서 행복을 찾는 경우이다. 박창원은 직장 다닐 때 배운 상담관련 공부와 활동을 기초로 ‘은퇴’이후,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진학하여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는 어떤 외재적 강제가 아닌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로부터 발현된 배움이라는 점에서 진정한 배움의 열정으로 볼 수 있다.

회사일이 끝나면 곧장 학교로 달려갔다. 이후 주말마다 상담소에 가서 상담활동을 했다. 그때는 몰랐다. 내가 인생 이모작의 씨를 이미 뿌리고 있다는 것을. (...) 상담하던 경력을 살려 복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1999년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에 들어갔다. 늦게 시작한 공부지만 정말 재미 있었다. 꿀꿀꿀 밤을 새우기도 여러 번이었다. (...) 박사과정에 들어가 5년 동안 논문 수백 편을 읽었다. (박창원, 65세, 사회복지전문가)

한숙희 역시 취미활동을 통해 새로운 삶을 디자인한 경우다. 그녀는 44세에 남편과 사별하고 60세 넘게까지 식당을 운영하면서 오로지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 그녀는 자녀들이 다 성장한 후, 취미생활을 위해 복지관에서 드림을 배우면서 자신도 알지 못했던 배움에 대한 잠재적 열정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녀는 드림을 잘 치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여 이에 관한 정보를 검색할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과 소통하며 드림에 대한 배움

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열정을 형성하기도 했다.

“왜 이렇게 좋은 취미를 좀 더 일찍 시작하지 않았을까” 후회막급이었다. 늦은 만큼 더 부지런히 배워야 했다. 연습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인터넷에 들어가 '드럼 잘 치는 법'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 드럼 관련 카페나 블로그에서 젊은 사람들이 올려놓은 글을 보면 꽤 유용했다. 악보에도 차츰 익숙해져 갔다. (한숙희, 73세, 드러머)

위 사례를 통해 연령이나 성에 상관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위해 적극적으로 배움에 도전하는 은퇴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들의 배움이 특별한 것은 배움의 출발이 자발적이라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주도적 학습은 배움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들을 단순한 여가선용 차원을 넘어 전문가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만들었다.

나. 노래의 날개를 타고: 먼 나라 이웃나라

새로운 능력의 발달과 동시에 잠재적인 다른 분야의 상실을 가져오는 것을 “적응적 특수화 (adaptive specialization)”(Han, 2006)라고 한다. 이는 인간이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발달적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는 발달 그 자체의 중지 또는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의 유형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배움에 대한 열정은 연령과 무관하게 일어난다. 다만 인간이 노화됨에 따라 꿈과 목표를 찾지 못할 뿐이다.

다음 사례에 등장하는 은퇴자들은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유학길에 올라 젊은이들 못지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어느새 환갑을 넘어버린 나이, 마음이 급했다. 작은 배낭 하나 달랑 싸들고 중국행 비행기를 탔다. 학교에 무작정 찾아가 교수들의 연구실 문을 두드리고 다녔다. (...) 좁은 기숙사에서 유학 생활이 시작됐다. (...) 아침점심저녁을 모두 학교 식당에서 때웠다. 아침 8시에 등교해 낮 12시까지 수업을 듣고, 밤늦게까지 그림에 매달리는 생활이 반복됐다. (...) 중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한 달을 머문 후 일본 교토(京都) 조형미술대학으로 두 번째 유학 길에 올랐다. (박지호, 66세, 남, 동양화가)

투루 기타를 만드는 흥내만 내고 싶지는 않았다. 사표 낸 다음 해 스페인 코르도바에서 열린 국제 기타 페스티벌에 참가해 기타 제작 과정을 수료했다. 미국 힐스버그 아메리칸 기타 스쿨에서 단기 코스를 밟았다. (이준석, 72세, 기타만드는 장인)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다소 개인차는 존재하겠지만, 노년기에도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변화와 성장 발전을 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비록 연령에 따라 선천적 유전에 의해 결정되는 유동성 지능은 감퇴될지라도 후천적인 다양한 경험과 학습, 문화 등으로 습득된 결정성 지능은 오히려 발달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3. 인생 2막을 향한 간주곡: 도전과 참여의 시기

Han(2006)은 노년교육학을 ‘노인을 위한 교육’, ‘노인에 관한 교육’, ‘노인에 의한 교육’으로 분류하며, ‘노인에 의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노인에 의한 교육’은 노인들의 풍부한 삶의 체험에 의한 교육을 말하는 것으로 현장지향적 특성을 가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을 주체적 존재로, 삶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자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가르침과 배움의 새로운 교육적 모델이 된다.

가. 의미 있는 타자, 일반화한 타자

일반적으로 학교교육에서 사회화를 촉진시키는 매개체로 교사와 또래집단을 중요하게 여긴다. 노인교육에서 사회화와 사회적 학습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모델 또는 준거집단은 바로 노인 또는 노년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노년기를 겪은 사람들의 삶은 하나의 준거집단으로, 노년기에 대한 시각과 삶의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다음은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낸 노인들의 경험에 자신의 노년기 삶의 좋은 롤 모델과 자극제가 된 경우이다. 김성철은 90세가 넘어서도 하루에 6시간씩 첼로 연습을 했다는 첼로의 거장 파블로

신문을 통해 본 '은퇴' 이후 성공적인 노년기와 학습 : 『조선일보』의 《양코르 내 인생》 기사를 중심으로

카잘스를, 박지호는 노년기에 걸작 중 60%를 만들었다는 괴테와 70세 넘어서 그림을 그려서 미국의 여류 국민화가 된 그랜드마 모세스를 롤 모델로 삼으면서,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첼로의 거장 파블로 카잘스는 아흔이 넘어서도 하루에 6시간씩 첼로 연습을 했다고 한다. 이유를 묻는 기자들 앞에서 카잘스는 말했다. “나는 지금도 매일 발전해 가고 있는 것 같소.” 일흔넷의 나 역시 지금도 날마다 조금씩 발전해 가고 있음을 느낀다. (김성철, 74세, 심리상담사)

'파우스트' 같은 괴테의 걸작 중 60%는 노년기에 만들어졌다. 미국의 여류 국민화가인 그랜드마 모세스는 일흔이 넘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나라고 주저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10년 동안 한 가지 일에 죽자 살자 매달리면 전문가가 된다고 한다. 62세에 시작한 그림이니, 72세 될 때까지 열심히 매진해볼 생각이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하루를 더 살아도 숨 막힐 정도의 감동을 잃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라고 믿으면서. (박지호, 66세, 동양화가)

일반적으로 노년기 학습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가 노화를 쇠퇴와 연관시켜 생각하는 것인데, 이는 '정상적 노화'가 아닌 '병리적 노화'로 일반화하기 때문이다. '정상적 노화'는 인간 발달의 자연적 과정으로 심리적·신체적·사회문화적·환경적 요인 등이 결합된 복합적 개념이다. 성공적인 노화는 이러한 '정상적 노화'를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는 단순히 유리이론(Cumming & Herry, 1961)이나 활동이론(Havighurst, 1968)으로 설명되기 보다는 노인들 스스로 결정과 책임에 의해 선택되어진 삶과 그 삶에 대한 수용과 만족의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위의 사례들은 '정상적 노화'를 토대로 한 성공적인 노년의 배움의 한 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나. '돌봄'의 공동체적 삶

일반적으로 '은퇴'이후의 일은 긍정적인 차원의 일과 사회에 공헌하는 의미 있는 일로 변화되

고, 삶은 공동체적인 것을 지향하게 된다(Woo, 2007). 타인에 대한 '돌봄'의 삶을 '은퇴'이후의 삶의 목표로 삼는 노인학습자들은 일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획득하고, 긍정적인 마인드와 함께 당당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문태우는 해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는 타인을 돌보는 행위가 곧 자신을 돌보는 행위임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들과 생활하면서 행복은 물질적 풍요만이 아니라 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그리고 봉사는 남을 위한 마음에서 출발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귀결된다는 깨달음도 얻었다. (...) 젊은이들에게 '내 삶은 어떤가'라고 묻고 싶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무엇으로 그 삶을 채우고, 무엇에 도전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문태우, 69세, 해외자원봉사자)

세대 간의 공감은 다양한 측면에서 일어날 수 있다. 세대가 다르면 체험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체험은 단절과 소통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 그리고 체험의 시기가 다르면 그것을 인식하는 정도도 달라진다. 노년의 자원봉사활동은 젊은이와 다른 통찰적 의식을 통해 삶의 방향성을 정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4. 또다른 나를 찾아, 세상 속으로

생애사건이 한 방향에서만 일어나지 않듯이, 해결책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개인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생애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개별적·주관적 선택과 결정이 중요하다. 정재운은 젊은 시절에 많은 방황을 했다. 그런데 직장암을 겪고부터는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디자인하게 된 경우다. 그는 암투병 중 우연히 컴퓨터를 접하게 되면서 질병을 견뎌내는데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영향력 있는 컴퓨터강사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는 노년에서야 자신의 적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고 한다. 그는 적성을 개발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배움의 과정에 몰입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노인인권강사로도 거듭날 수 있었다. 그는 노인인권강사로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 노인들에게 자발성과 적극성을 가진 삶의 주체가 되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

컴퓨터와 인연을 맺기 전, 내 인생 1막은 방황의 연속이었다. (...) 컴퓨터를 배우는 재미에 쏙 빠져 육체의 아픔은 잊어버렸다. 내친 김에 자격증도 따고 2002년엔 전국 실버정보검색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 6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내 적성을 그제야 알아낸 느낌이었다. (...) 요즘 나는 노인인권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 내 또래 노인들에게 입이 닳도록 말한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식량만 축내는 '뒷방 늙은이'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정재운, 72세, 컴퓨터 강사)

이처럼, 현재 성공적인 인생 제 2막을 보내고 있는 은퇴자들은 불안과 희망의 시기, 열정의 시기, 끊임없는 도전과 참여의 시기의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의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똑같은 경험을 반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 겪는 경험의 시기와 상황이 매번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적 경험은 수없이 많은 경험이 내면화된 상태에서 또는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이런 점에서 노년의 교육은 다른 연령에서 일어나는 교육과는 다른 수준의 사회화를 위한 수단이 되며, 새로운 교육의 장을 여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은퇴'이후,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노인학습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노년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모색함과 더불어 노년기

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재정립뿐만 아니라 평생교육현장에서 노인교육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11년 『조선일보』의 『앙코르 내 인생』 코너에서 은퇴 이후, 적극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새로운 직업에 종사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노인학습자 8명의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공적인 은퇴자인 노인학습자들에게 있어 '은퇴'는 한편으로는 심리적·정서적 불안을 동반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간직했던 오랜 꿈을 실현하기 위한 전환점이 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은퇴자들은 은퇴 초기에 Yoon & Lee(2006)의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울, 스트레스, 불안감, 두려움, 허전함, 당황감 등을 경험하지만, 점차적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활동영역에 도전함으로써 생활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Kang, 2007; Kim & Jung, 2003; Kwon & Lee, 2011).

다음으로, 성공적인 은퇴자인 노인학습자들은 '은퇴'이후 배움에 대한 열정을 통해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내고 있었다. 은퇴자들은 그동안 접어들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배움의 문을 두드렸으며, 이러한 배움의 의지는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삶을 디자인하도록 이끌었다. 이들은 학습경험을 토대로 평생학습자, 문화창조자, 생산적 학습자,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해 나가는 생애사적 학습자로 거듭나고 있었다(Lee & Park, 2009).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은퇴자인 노인학습자들은 '은퇴'이후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 공동체적 삶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참여하였다. 이들은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낸 사람들을 자기사회화의 롤 모델로 삼았으며,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삶을 넘어 세대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데 도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이 같은 노인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비록 신문에 기사화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역동적인 노인학습자들의 일상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은퇴' 이후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노년의 삶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노년(또는 노년기)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년도 능동적인 삶의 주체로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학교 교과내용에 노인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수록한다거나, 노인과 관련된 다양한 캠페인이나 공익광고를 지속적으로 한다거나, 성공적인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매스컴을 통해 자주 소개하는 등 사회 전반에서 보다 건강한 노년의 삶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은퇴'를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직장에서는 명목상으로 존재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아니라 필수교육으로써 은퇴준비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은퇴' 이후, 노년의 삶을 보다 건강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노년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히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도록 전 생애 발달적 접근에서 노년학습이 일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인교육프로그램에서도 여가선용과 같은 한정적인 내용에서 벗어나 다양한 노인학습자들의 문화적 취향이나 특성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넷째, 노인의 재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개인의 삶에서 일은 경제적 보상의 기능, 생활을 규제하는 기능, 정체성을 부여하는 기능,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개인의 행동양식과 태도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기능, 삶의 의미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한다(Friedmann & Havighurst, 1954; Harris & Cole, 1986 재인용). 따라서 노인들도 일을 통해 삶의 생기와 활기, 자신감과 자존감을 되찾아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제반적인 여건들,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연령에 따른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 등과 같은 노인 관련 평생교육기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여전히 노년기를 단순히 쇠퇴의 시기로만 여기거나, 죽음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삶에 머물러 있는 노인들이 많다. 이들이 생애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잠재적 노인학습자들을 다양한 학습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References

- An, G. S. & Kim, Y. J.(2007). Developing retirement preparation program for male salaried workers and evaluating its effectivenes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2(1), 93~118.
- Cho, H. J & Kim, M. J.(2011).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Retirees as Phrase of Retirement, *Consumption Culture Studies*, 14(4), 139~163.
- Choi, S. J.(2002). Policy Direction of the Welfare for successful aging,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2002 Spring Conference, 213~245.
- Cumming, W. E. & Herry, E.(1961). *Growing old: the process of disengagement*, New York: Basic Books.
- Eates, C. & J. E. Mahakian(2001). The political economy of productive aging, *Productive Aging*. Johns Hopkins Univ. Press.
- Han, J. R.(2006). *Educational Gerontology*, Seoul: Hakjisa.
- Harris, D. K. & Cole, W. E.(1986). *Sociology of aging*. Choi, S. D. translation(1998). *Sociology of aging*, Seoul: Kyungmoonsa.
- Havighurst, R. J.(1968). *Personality and patterns of*

- aging, *Gerontologist*, 8(1), 20~23.
- Joo, Y. K.(2011). The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Successful Aging in Professional Retirees, *The Study of Vocational Education*, 30(1), 75~96.
- Kang, I.(2007). Study of Adjustment of Retired Elderly Men: Focusing on the buffering effects of self-complexity,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2(3), 259~283.
- Kang, J, S.(2008). Grounded Theory Approach on the Adaptation Process related to Retirement for Elderly,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8(3), 477~496.
- Kee, Y. W. & Kim, N. S.(2005). Needs Analysis under Middle & Old Aged Blue Workers' Pre-retirement Educational According to Enterprises size and Pre-retirement Educational. *Journal of Employment and Skills Development*, 8(1), 127~145.
- Kim, H. B. et al.(2010). Understanding of the experiential learning on Adult: theory and practice. Seoul: Dongmunsa.
- Kim, M. H. & Jung, J. K(2003). An Empirical Study of Elderly Volunteering Commitment and Their Life Satisfaction Based on Activity Theor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4, 221~243.
- Kim, M. H. · Lee, H. J. & Seo, M. K.(2008). The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Job Seeking Experience of Korean Elderly Male Retirees who Succeeded in Reemployment,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8(1), 123~142.
- Kim, M. Y. · Son, H. S. & Park, M. S.(2011). Korean Middle-Aged and Elderly Men's Experiences of Retirement and Life Satisfaction after Retirement,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Quarterly*, 15(4), 65~78.
- Kwon, E. B. & Lee, J. H.(2011). The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in Male Retirees: Focus on Retirement-related Variables and Marital Quality,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5(4), 73~92.
- Lee, G. H. & Park, S. H(2009). Qualitative study on the concept of elderly learning as self-integrated learning derived from the elderly's learning experiences,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15(1), 1~29.
- Lee, Y. H.(2005). A basic study on the aged society and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A focus on public servants in chungcheongnam-do, *Collected papers in Hyejeon College*. 23, 223~243.
- Lee, Y. S. & Kee, Y. W.(2010). The component of Successful Aging related Pre-Retirement Experience for Third Age Retirement Male : focusing on Self-Identity, *Lifelong-HRD Research*, 6(3), 115~130.
- Lemon, et al.(1972). An Exploration of the Activity Theory of Aging: Activity Type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In-movers to a Retirement Community, *Journal of Gerontology*, 27, 511~523.
- Park, P. J. & Kee, Y. W.(2009). Pre-Retirement Education Effect on Teacher's Successful Aging, *Lifelong-HRD Research*, 5(1), 181~209.
- Park, S. H.(2004). *Biography Research*. Seoul: Wonmisa.
- Park, S. H.(2009). Educational Welfare Concept to Strengthen the Employability For Elderly Women at the Base of Vocational Biography, *Andragogy Today*, 12(4), 61~82.
- Rhee, K. O & Lee, J. Y(2005). The Study on the Adaptation Process of Young Old Men and the Perspective after Their Retiremen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7(1), 93~120.
- Sarup, M. (1978). *Marxism and Education*. Lee, H. Y. et al. translation(1987). Seoul: Hangilsa.
- Song, I. J.(2008). The Meaning of Re-employment Courses in the social Jobs for the Retired Male Aged in Korea,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8(3), 497~514.
- Woo, K. H.(2007). The Changing Meaning of Work and Social Contribution- Job Creation for middle-aged retiree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36, 63~90.
- Yoon, H. S. & Lee, M. J.(2006). Gender, Residential Areas, Retirement Transition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8(4), 197~217.

-
- 논문접수일 : 2014년 09월 11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4년 11월 17일
 - 게재확정일 : 2015년 01월 02일